

우리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독서대학'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책 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를 주제로 총10주간 진행하고 지난 6월 10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 글을 쓰신 이하범 님은 강원도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서 진행된 "2008 독서대학"의 수료생이다.

'내안의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 하 범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학술지원과장
honeybee@sangji.ac.kr

"책 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교육을 받는 동안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독서치료'라는 교육과정을 듣고 있노라고 말하면 공통적인 질문은 '상처'가 '책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라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그 물음에 나는 주눅이 잔뜩 든 목소리로 '글쎄요...' 라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이것이 내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 교육을 참

석하게 된 이유였다. 내가 참가한 교육을 지도해주시던 교수님께서도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치료과정은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진행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독서치료라는 일이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나서야 느끼고 있다.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라던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진배없이...’ 그러다가 대화 도중 눈시울을 붉히거나 웃다가 그제서야 마음 안에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던 상처에 대해 공감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느 덧 기형이 되어 버린 내 새끼발가락을 떠올렸다. 겪을 때 비록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경우라도 오랫동안 충격이 반복 되면서 흔적을 남기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후회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아픔에 익숙해지거나 무감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느끼거나 읽어내는 방법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위로하고 싶었다. 누구를 위한 위로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한없이 안타깝기도 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또 한번 부끄러울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색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내 자신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겁기도 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문제의 영역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됨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가슴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던 강박관념, 그 상처 덩어리가 내 성숙,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 교육과정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각도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면서 내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타인 같은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내가 그리 거부해마지않던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책과 뒹굴면서 나는 이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나로 빠져들어 있었다. 목적했던 바가 달랐던 만큼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 관점을 잡을 수 없어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혼란스러움, 내가 가졌던 세월의 반 이상을 책을 만지고 살았으면서도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던 그 생소함을 생각하면 지금은 웃음이 나온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가져보는 풍만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무감한 일상에 익숙해지고 남아있는 날들이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

이었을지 독서치료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아파서 깊이 생각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를 읽으며 나로 인해 마음 아팠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몸에 밴 어린 시절』을 접했을 때는 내가 만난 과거 내재아를 통해 돌아가신 엄마를 행복하게 기억하고 아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에서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내 특성과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심기도 했고, 『아직도 가야할 길』안에서 내 생애 남아있는 숙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색다른 경험이 아직도 가슴 설레이기만 하다.

상황에 맞는 책을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마음 치료과정인 독서치료(bibliotherapy)의 정의가 실감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우연한 선택을 앞으로 어찌 간수해갈지 고민이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도서관이 시행하는 독서대학의 영역에 소통·매개 도구의 마련부터 책을 읽고 정리해나가는 독서지도, 생활 속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독서치료까지 아우르는 도서관속 생활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내 몫의 역할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아직도 멀리 있기만한그 길을 지금 나서고 있다. 마음이 바쁘다. 그러나 성급하게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 나라는 주체가 빠진 이야기는 나를 살리는 진정한 수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찾는 것이 모두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이 순간을 즐기고자 한다.

내 삶의 멘토!

10여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듣게 된 당신의 목소리가 예사롭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오늘도 스캇 껍을 끌어안고 당신 말씀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하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있는 오늘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